



#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 미국

### AT & T,요금인하 공세

AT & T가 최근 설립된 장거리전화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방법으로는 규모가 큰 수요자를 겨냥하여 특정수요가용으로 할인을 하거나 여러 지역 동시통신을 할 경우에 할인을 하는 등 연이어서 새로운 인하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장거리전화사업의 요금규제 완화를 촉구해 왔으며, 전화업계에서도 이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유니스, 中国전산네트워크사업 受注

유니스사는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중국 전국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입·조세정보시스템계획인 파이롯트 사업을 주문받았다. 이는 유니스차이나가 수주한 것으로 계약액은 약 350만 달러며, 5대의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외에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관련기기등을 4백만 달러 이상 공급하게 된다.

### 텍사스주, 컴퓨터 5백대 연결

텍사스주의 34개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에 있는 약 5백대의 컴퓨터를 고속디지털 회선으로 연결, NSF(전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데이터베이스나 슈퍼컴퓨터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가 최근 완성되었다. 이는 그동안 주정부가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구축해 왔던 것이다.

### US웨스트, 다음달부터 ISDN 개시

지역전화회사인 US웨스트는 오는 9월부터 7개 도시에 ISDN(종합디지털통신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는 지역전화회사로서는 아메리테크에 이어 두번째인데, 서비스하게 될 도시는 덴버, 뉘캐스, 시애틀 등이다. US 웨스트는

지난 86년 11월부터 ISDN의 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 상용화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 센텔, 자동차전화 2배로 확대

센텔사가 최근 유니티드 텔리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체 통신서비스부문을 매수했다. 매수 총액은 7억 6천만 달러. 이로써 센텔의 자동차전화사업은 40개 영업지역, 대상인구 1천 4백만명으로 종래보다 2배의 규모로 확대, 상위 10사의 대열에 끼게 됐다. 미국의 자동차 전화시장은 오는 90년에는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쟁이 극심해 업계의 재편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IBM등 UNIX표준 개발

IBM등 미국과 구라파의 유력한 컴퓨터 메이커 7개사는 최근 새로운 OS(기본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조직인 「오픈소프트웨어 화운데이션」을 설립하였다. 이는 AT & T에 의한 UNIX의 표준화에 대항해서 다음 세대 OS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각사가 부담하는 개발자금은 모두 9천만달러에 달한다. 이 움직임에 대응해 「UNIX의 본가」인 AT & T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IMM·휴즈 통신시스템 共同受注

미국의 이동체통신시스템메이커인 인터내셔널모빌머신즈(IMM)는 최근 휴즈에어크라프트와 제휴, 원거리용 디지털통신시스템을 연방정부에 판매하기로 했다. 방법으로는 IMM의 디지털국 통신서비스와 휴즈의 위성지구국등을 조합, 정부의 주문을 받는 형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 对中国 輸出規制 완화

미국정부는 고도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굳히고, 이번 여름 「코콤(对共産圏輸出統制

委員會)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규제가 완화될 대상품목은 컴퓨터, 통신기기, 기타 전자제품들이며, 이미 완화조치가 취해져 있는 32개품목의 상위기종이 인가대상이 된다. 이로써 여태까지 엄격한 관리를 받아왔던 범용대형컴퓨터와 고성능 개인컴퓨터도 인가의 대상이 되는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는 군사상의 문제로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NEXT사 32비트 워크스테이션 개발

애플사의 창시자이며 실리콘밸리의 마술사로 불리는 스타트업이 이끄는 NEXT사가 최근 32비트 워크스테이션(WS)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품의 정식발표는 지난달 있었으나, 그 시제품은 지난 4월 각대학으로 납품돼 호평을 받았다.

이는 상위와 하위의 두기종으로 분류되는데 둘다 CPU가 모토롤라의 68030이며, 모니터의 해상도도 1,280×960도트이다. 또한 3.5인치 FDD, 9천6백bps모뎀을 쓰며, 내장RAM표준은 상위가 8M바이트, 하위가 4M바이트용량이고, 내장HDD는 상위 200M바이트, 하위 40M바이트이다. 가격은 상위가 9천달러(학교용 6천달러), 하위가 5천달러(학교용 3천달러)이다.

## 일본

### AX, 랩탑, OS/2가 관심의 초점

제66회 비즈니스쇼가 예년과 같이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동경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쇼는 「인텔리전트 오피스」를 테마로 하여 295사가 출품하였는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AX(일본판 IMB PC/AT)와 랩탑(휴대용) 및 차세대용 OS인 OS/2, 세가지다.

AX는 산요, 미쯔비시, 샤프와 일본에이사가 출품하였다. 랩탑은 일본의 사실상의 표준이 되고 있는 PC-9801 시리즈의 일본전기를 비롯하여 후지쯔, PFU, 일본IBM, 미쯔비시전기, 히다찌, 마쯔시타전기, 산요전기, 리코, 세이코엡센, 도시바 등 주요 메이커들의 제품이 모두 선보였다. OS/2의 데모는 일본 IBM을 비롯하여 각 하드메이커에서 실시되었다.

OS/2는 차세대용 OS라고 하면서도 그 실체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까닭에 OS/2극장이라 이름 붙인 코너에서는 연일 OS/2의 데모를 실시하였고, 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번 쇼를 통해 이제 비즈니스

쇼는 완전히 퍼스널컴퓨터가 그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TRON칩 등장

마이크로컴퓨터쇼가 지난 5월 11일부터 4일간 동경 유통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쇼는 「마이컴, 끝없는 창조의 세계」라는 테마 아래 63사가 출품하였는데, 주목의 대상은 각사에서 내놓은 TRON 칩과 오리지널 프로세서였다.

TRON 칩은 히다찌, 미쯔비시, 후지쯔가 각각 자사의 32비트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오리지널칩도 여럿 나왔는데 인기가 높았던 것은 일본전기의 V33이었다. 또한 여기서는 현재의 V30과의 처리스피드를 비교하는 실연이 있었는데, 아직 V33을 탑재한 PC-9801이 제품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현행기종보다 몇배의 처리속도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 전화서비스 수지명세公表

그동안 한가지 항목으로 묶여 있던 시내전화, 시외전화, 자동차전화 등의 NTT 서비스별 비용과 수익이 올해분부터 내용별로 분석, 일반에 공표하게 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NTT 회계에 대해 서비스 사이에 상호보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우정성이 전기통신사업회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실시하게 되며, 현재의 회계규칙으로도 이미 서비스내용을 전화, 전신, 전보, 전용, 데이터전송, 무선호출 등으로 분류한 서비스별 명세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내용이 세분화되며, 이 명세표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와 일반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었다.

## 동경만해운넷 요금 인가 신청

동경 항만지구의 선박이나 관련사업자 사이의 통신을 맡아하는 이동체통신인 동경만마리네트가 지난 6월말 서비스요금을 우정성에 신청했다.

이는 가입료가 3만엔, 월기본료가 1만 4천엔이며, 통화료는 마리네트 전화끼리 할 경우에는 1분간 20엔, NTT 외 전화공중망과 접속해서 일반전화와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마리네트쪽이 1분간 30엔이다. 이 시스템은 동경타워에 무선국을 두고 반경 50km 지역에 전파를 보내는 대규모의 것인데, 이 지역내라면 휴대용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다.



마리네트전화와 일반전화 사이는 동시 쌍방향이나 마리네트끼리는 상대가 말을 마치는 것을 기다려서 말하는 시간차 쌍방향이다. 동경만 마리네트는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국제VAN G3팩시밀리 인가 검토

우정성은 최근 국제 VAN의 서비스에 G3 팩시밀리를 조건부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 VAN사업에서는 「전자우편」과 「팩킷교환서비스」등 데이터계의 서비스만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국제 VAN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G3팩시밀리통신의 제공을 희망해 왔다. 국제간의 G3 팩시밀리는 일반적으로 음성통화를 목적으로 한 KDD의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해 터미널 사이에서 리얼타임으로 통신하는 방법과 KDD의 국제팩시밀리 축적교환서비스 「F포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축적교환기능을 갖는 F포트에 상당하는 서비스에 配信時刻지정이나 同報기능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우정성이 판단, 이같은 서비스를 국제 VAN업자에게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올가을까지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정리, 내년 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전자전표 표준화 착수

표준화된 전자전표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데이터교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도 미국·유럽에 이어 EDI의 국내표준을 작성하기 위해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가 사무국이 되어서 심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기업과 거래가 있는 일본기업에서도 이미 수십개사가 미국표준의 EDI를 채용해서 사용, 유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동향에 맞추어 국제 VAN업계에서도 주요 상품으로 EDI를 중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 NTT 휴대전화

NTT는 복수구간을 이동해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코드리스전화를 올가을부터 판매한다.

이 새로운 코드리스전화의 명칭은 시티와이드 텔리폰 (CWT)이며, 전화단말은 건전지 내장형으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을 스윗칭하는 방식에 의해 복수의 접속장치에 무선으로 액세스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접속장치를 준비해 두면 사무실이나 복도를 이동해도 가장 가까운 접속장치에 접속, 통화할 수 있다.

### 한큐백화점 配送VAN 개발

한큐백화점은 일본정보서비스와 공동으로 동사의 가정배달상품의 배달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백화점배송VAN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가정배달관련정보의 처리업무가 종래의 12분의 1 정도의 시간으로 처리되는데, 현재 대형 백화점들이 이같은 VAN을 연구 개발중이나 실제로 가동에 들어간 것은 동사가 처음이다.

### 일본여행, JTB 「세이버」와 접속

일본여행사와 일본교통공사는 최근 각사의 온라인시스템을 미국 어메리칸항공(AA)의 컴퓨터시스템 세이버(접속 터미널 약 10만대)와 결합, 서비스에 들어갔다.

양사는 각사의 터미널로 「세이버」가 갖는 세계적인 여행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의 예약·수배가 대폭 효율화되고, 해외여행시장에서의 점유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전기, 5백사와 전자결제

일본전기는 자재조달기업 3백사와 계열기업 1백 10사, 거래금융기관을 각각 「C & C-VAN」으로 연결한 전자결제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우선 다음달에 계열회사와의 결제를 전자결제로 이행하고, 내년중 자재조달 기업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는 결제업무의 신속성과 경비절감을 위한 것으로 5백사 가까운 규모의 전자 결제네트워크는 일본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 미쯔비시, 兩方式 TV전화 개발

미쯔비시전기는 최근 NTT와 KDD, 양사의 장치와 교

신이 되는 TV 전화기를 개발하였다.

ISDN (종합디지털통신망)용 TV 전화기는 NTT와 KDD가 각각 다른 방식을 제창, 주도권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미쓰비시는 일부 회로를 갈아끼우는 것만으로 2개 방식의 TV 전화기와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ISDN 지방확대에 衛星이용

NTT는 내년도 이후의 ISDN 지방확대에 통신위성을 이용한다.

지방은 산악지대가 많아 지방회선의 부설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위성지구국을 설치해 ISDN을 빨리 보급시키려는 것이다. 위성은 내년 2월에 쏘아올릴 예정인 일본통신위성의 제1호 위성을 사용할 예정이다.

### 위성으로 非常망

종합경비보장사는 최근 동사의 위성통신망을 고객기업의 비상통신망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난을 당하여 지상계의 통신망이 사용불능케 된 경우 통신업무를 대신해 주는데, 위성통신망은 동경과 오사카에 지구국을 설치하고, 전국 10개 도시의 지점에 소형국을 두어서 통신위성「CS-3」에 의해 이들 국을 연결하게 된다. 주로 도시은행이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럽

### 국제전용선 판매 경쟁 激化

유럽 각국은 최근 국제전용선을 일본에 판매하기 위한 요금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우정성 전기통신총국의 국제부문의 프랑스 텔리콤 인터내셔널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한 日·佛간의 2Mbps 고속디지털회선의 프랑스쪽 요금을 영국 브리티시텔리콤의 같은 서비스보다 40% 이상 싸게 설정하였다. 또한 서독 우전성(DBP)은 일본, 미국 등과의 국제전용선 요금을 다음달에 인하할 예정인데, 인하폭은 40%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국은 「유럽의 통신거점을 영국에 둘 경우보다 비용이 싸진다」는 이유를 들어 자기 나라의 전용선을 일본기업에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 佛텔리콤, 미니텔을 有料化

프랑스의 텔리콤은 최근 금년내에 비디오텍스인 미니텔터미널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텔리콤은 여태까지 터미널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왔으나 서비스가 정착하고 업무용 이용도 늘어남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현재 미니텔의 보급대수는 3백 6십만대에 달하고 있다.

### 지멘스, ISDN용 IC 개발

서독의 지멘스는 미국 반도체메이커 어드벤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와 공동으로 개발한 ISDN용 IC 세트 15종을 지난 6월부터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양사는 앞으로 12년간 이 제품군을 공동으로 판매할 뿐 아니라 서로 세컨드소스(제조판매권의 제공)를 인정하기로 했다.

### 航空券 예약시스템

유럽의 항공권예약시스템에 관한 시장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항공(BA)을 상대로 미국 아메리칸항공(AA)이 제기한 소송이 그 결말을 곧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이버시스템을 가지고 유럽을 석권하려는 AA가, 영국에서 BA가 「트리비컴」시스템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못하게 강력히 막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로마조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것이다. 만약 BA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세이버의 유럽시장에서의 시장개척에 한걸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소련, IBM과 퍼스컴 생산 합작

소련이 최근 IBM의 지원을 얻어 퍼스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련의 자동차 생산 합동카즈마가 미국 IBM과 합작, IBM이 기술지도를 하는 계약을 맺기로 했다.

계획에 의하면 당면한 기술제공 대상은 「코롬」에서 규제를 풀 16비트 퍼스컴이며, 합작회사를 근간으로 하여 부품의 개발, 공급에서 본체조립의 노우하우까지 IBM이 전면적인 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생산대수 등은 미정이나 소련정부는 2년후인 오는 90년에 1백만대 양산 체제를 확립할 것임을 공식으로 표명하였다.♣